슈퍼맨이 돌아왔다?

윤치경 차장
예산회계팀

“아빠 어이이찌? 띠빠웅구? 쿠모크르 코?”, “엄마 빠빠뿌엉엉 쿠르쿠마.”

토요일 아침 7시경. 창밖은 아직도 어둑어둑한데, 주말에도 예외 없이 생후 21개월인 그녀들의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알린다.

서영 : 아빠 어디 있지? 깨울까? 그냥 우리끼리 놀까?
수연 : 엄마 깨워서 놀자.

분명 이런 뜻이었을 거다. 다행이다. ‘여보 고생해’라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데 와이프의 외마디가 귓가에 꽂힌다.
“여보!”, “으응? 아가들~아빠랑 놀까.”

요즘 아빠들의 좌충우돌 육아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이 인기다. 특히 하나도 아닌, 쌍둥이에 삼둥이까지 아빠 홀로 척척 돌보는 ‘슈퍼맨’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영 초기에는 반가운 마음이 컸다. 조금은 특별한 쌍둥이 육아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늘어 양해와 이해를 구하기가 쉬워졌고, 다둥이 아빠만의 ‘행복한 고충’을 공유할 수 있어 힘이 됐다. 그런데 방송이 회를 거듭할수록, ‘브라운관 현실’은 ‘나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와이프를 여행 보내고 애들을 봐야 하나’하는 심리적인 부담이 생겼고, ‘방송카메라 너머에는 아이 엄마 대신 분명 스텝이나 도우미 이모가 도와주고 있을거야’하는 근거 없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진짜 슈퍼맨도 혼자서 둘을 돌보면 앓아누울 지경인데, TV에서는 ‘육아기능 탑재된 슈퍼맨 아빠’들이 요리까지 해보이며 누구나 하는 것처럼 방영하고 있으니, 내 자신이 불량 아빠라는 자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착각이라도 필요했다.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는 ‘슈퍼맨 아빠’ 이상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 조카 6명을 돌본 경험이 내 밑천이었다. 한때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이 아이의 인격 형성을 좌우한다는데, 딸들이 아빠만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 아가들에게 시간 맞춰 우유 주고, 품에 안아 재우며, 기저귀를 갈아줄 때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내 모습을 보며 ‘이러다 엄마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거 아닌가’하고 걱정했더란다. 적어도 사랑스러운 그녀들이 한밤중에 한두 시간마다 번갈아가며 일어나 울기 전까지는, 그녀들의 몸무게가 10kg이 넘어 안을 때마다 팔과 허리가 아려오기 전까지는, 그녀들이 기저귀 갈다가 도망가기 전까지는 그런 고민은 유효했다(솔직히 기저귀 갈 때 ‘다다다’ 뛰어가는 모습은 귀엽다. 그러나 기저귀로부터 자유를 줄 때마다 낭패를 겪어야 했기에,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기저귀는 무조건 채워야 한다는 철칙이 생겼다).

아가들의 월령이 늘어갈수록, 엄마들의 손목과 허리가 왜 시큰한지, 엄마들의 목소리가 왜 점점 높아지는지, 엄마들은 왜 ‘자유시간’을 그토록 원하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아마 다둥이 아빠가 아니었다면, 아가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는 여성의 ‘엄마 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의반 타의반 여느 아빠보다 밤잠을 더 포기해야 하고, 한번 불러줄 노래를 각자의 기호에 따라 두 번을 불러줘야 하고, 동시에 울고 있는 두 아이 중 누구를 먼저 안아줘야 할지(물론 우리 딸들은 서로 엄마에게 가려고 하지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줘야 할지,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다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등 매번 크고 작은 고민과 선택의 순간에 놓이다보니, 말 한마디 통하지 않은 아가들의 뜻을 헤아려가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일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강도라는 사실과, 그동안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가들을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힘들 때엔 늘 마음속으로 ‘빨리빨리’를 재촉했다. 아가들이 누워만 있을 때는 빨리 기어 다녔으면, 기어 다닐 때는 빨리 일어나 걸었으면, 걷기 시작할 때는 빨리 말을 할 줄 알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태어나 눈도 못 뜨던 아가들이 어느덧 21개월이 되었다. 이제 아가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주문할 줄도 알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교와 투정을 적절히 구사하기도 한다. 흐르는 시간이 아쉬울 만큼 시간에 가속도가 붙어 하루가 다르게 눈빛이 깊어간다.

2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단 아가들만 자란 것이 아니다. 아가들을 한번이라도 더 웃게 하기 위해, 보다 좋은 것을 보고 들려주기 위해 고민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다. 내가 아가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가들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딸들~ 아빠가 비록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영웅은 아니지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너희들의 웃음을 지켜주는 우리 가족의 ‘슈퍼맨’이 될게!